www.4060job.or.kr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 합니다
4060의 재취업·창업!
당신의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재취업·창업지원 무료 서비스
• 1:1 맞춤 재취업 컨설팅 제공
•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재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플라자 운영
서비스 신청방법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노사발전재단

Entertainment p/15
타고난 19금 '에로 공민지'

metro
메트로 2013년 7월 10일 수요일 제27??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LG 이진영 끝내기 안타

여중생 추모 촛불 켠 대륙 8일 밤 중국 저장성 장산중학교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 사고로 희생된 같은 학교 왕린자이와 예멍위안을 추모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로이터 연합뉴스

'싼값보다 제값' 줘야 똑똑한 소비

"좀 비싸도 품질 좋은 제품 선택" 풍조 확산…불황에도 고가제품 날개돋친 듯 팔려

저렴한 제품을 사냥하던 '알뜰 소비족'이 진화하고 있다.

무조건 싼 것만 찾지 않고 가격 대비 효용이 뛰어난 제품을 노리는 '통 큰 알뜰 소비자'의 탄생이다.

고음질을 추구하는 트렌드, 이어폰과 헤드폰을 패션 소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 제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이어폰·헤드폰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을 돌파했다. 2년 전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에는 1100억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이다. 이어폰·헤드폰 평균 가격도 2년 전보다 22%가량 비싸졌지만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30만~100만원대 이상 고가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덴마크 명품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A8, 미국 프리미엄 헤드폰·이어폰 제조사 몬스터의 '닥터드레' 등은 20만~5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 닥터드레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CJ E&M에 따르면 월 판매량이 4500개에 달한다. 헤드폰 명품으로 불리는 젠하이저 또한 국내에 진출한 지난 2년간 매출이 3배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대비 효용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소셜커머스도 알뜰 소비족 덕에 매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 2조원이었던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3년 시장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티몬은 올해 1분기 총 거래액 2300억원을 올리며 분기 단위 순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난 5월 구매자 수 1104만 명, 월 매출액 73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의 선구자인 SPA 브랜드의 판매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니클로, 자라, H&M은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 합계(금융감독원 전자 공시)가 7968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PA 브랜드는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과 디자인까지 고려하는 가치 소비 패턴에 들어맞는 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또 제품 교체 주기가 짧아서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욕구를 잘 맞추고 있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가격·품질 모두 따지는 가치소비

일반 제품 대비 가격이 두 배가량 비싼 프리미엄 가전이 잘 팔리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생활 가전 등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매월 5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에어컨 'Q9000'은 전년 대비 홈 멀티제품 기준 3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드럼세탁기 '버블샷3 W9000'과 냉장고 '지펠 푸드쇼케이스 FS9000'의 판매 수치도 매달 두 자릿수 퍼센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스마트 에어컨 Q9000은 사용자가 직접 목표 전력량을 설정할 수 있으며 누적 전력량의 확인도 가능해 전기료 절약에 효과적이다. 버블샷3 W9000은 물 없이 빨래를 알리고 세제를 자동으로 넣는 기능 등을 탑재했다.

푸드쇼케이스 FS9000은 기존에 하나였던 냉장실을 '인케이스'와 '쇼케이스' 2개의 냉장실로 나눠 식재료와 음식을 각각 신선하고 찾기 쉽게 보관하도록 했으며, 특히 쇼케이스에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에 따라 3개의 존으로 구분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국민연금 보험료율 '9%→14%' 오르나

100만원 벌면 월 2만5000원 더 내야

국민연금이 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적자가 누적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개혁을 미룬 채 국민연금만 '메스'를 들이대는 상황이라 논란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월 398만원인 소득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지는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소득 상한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

인상안이 예정대로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까지는 100만원 벌어 4.5%인 4만5000원(사업자 부담 4만5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7%인 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 시행 25년 만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연금기금은 2060년께 밑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장기간 존속하려면 무엇보다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근본적 틀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늦게, 적게 받는 개편을 여러 차례 실시해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0조원을 넘는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돼 세금 보전 형식으로 연금을 지급 중인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국헌기자 kmlee@

음란카페 운영자 잡으니 초딩

연예인 합성사진 등 게시… 회원수 무려 4000명

'김본좌'도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앱으로 연예인 합성 사진·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한 이용자들이 적발된 가운데 회원 4000여 명을 보유한 인터넷 음란 카페의 운영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6학년 송모(12)군 등 10대 8명과 김모(52)씨 등 성인 7명을 적발했다.

송군 등은 지난 3월 '19동인지 19여다' 등 4개 인터넷 카페에서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53명의 합성 음란 사진 614장과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공유했다. 송군이 개설한 카페의 회원 수는 4367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 60%는 10대였다.

이 카페에는 "영상 20건+합성사진 300장+사이트(주소 비밀번호) 1개에 5000원 선불"이라는 광고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나머지 성인·청소년 10명은 친구 찾기와 채팅 앱인 '카톡 티톡'을 이용해 국내 아동음란물을 유포했다.

이들은 친구 찾기 앱에 올라온 '입었던 속옷 삽니다', '교복 입은 영상 교환' 등 게시물을 보고 채팅 앱 아이디를 교환한 뒤 음란물을 공유했다. /한용수기자 hys@

당신도 겉멋 든 문화 소비자인가요

노트북 ON

김유리
<정치사회부 기자>

해외 대형 공연과 유명 작가의 전시가 붐을 이루고 있다. 신문·방송 광고는 물론 대형 건물에도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런 멋진 공연·전시를 국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매력적이다. 굳이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아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손쉽게 즐길 수 있으니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그 공연이나 그 전시 작가를 정말 좋아했던가.

한 번은 친구와 걷다가 작은 전시관에 발길이 닿았다. 손에 잡을 만한 작품 수와 무료 전시라는 점 때문인지 친구는 금방 흥미를 잃었다. 관람 후 그 친구는 해외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봤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 작품이 왜 좋은지에 대한 감상평은 없었다.

집에 돌아와 공연과 전시회 관람 티켓을 모아놓은 노트를 펼쳐봤다. 지금까지 본 공연과 전시는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고 관람한 것일까.

신촌과 대학로 소극장에는 국내 창작 공연이 꾸준히 무대에 오른다. 인사동과 삼청동 등에는 작은 전시관이 오밀조밀 몰려 있다. 대형 공연 앞에서 이런 작은 공연과 전시들은 뒤로 밀리기 마련이다.

굳이 해외 공연을 배척하고 '국내산' 문화를 즐기자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 유명 대작'이라는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문화적 취향을 찾자는 것이다. 문화는 명품처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조종 과실로 모는 美언론

기체결함·공항 문제는 배제… 경험 부족만 부각

미국 언론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충돌 사고를 조종사 과실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9일(한국시간) 워싱턴포스트는 기사 제목을 "경험 없는 아시아나 기장"이라고 달고 "조사 당국은 기체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을 포함,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CNN은 "이강국 기장은 사고 기종인 보잉 777을 9차례, 43시간 운항한 게 전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장의 조종 미숙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집중 부각했다.

뉴욕타임스는 '아시아나 214편 기장의 보잉 777 경험 부족'을 제목으로 달고 "글라이드 슬로프는 시계가 확보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글라이드 슬로프는 착륙 비행기에 고도를 알려주는 장치로 이번 사고 당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글라이드 슬로프는 고장 나 있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에 자국 언론들이 지나치게 애국주의적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기를 조종한 이강국 기장과 이정민 부기장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조종사 과실로 단정 짓는 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실장도 "NTSB 발표 내용으로 조종사 과실을 예단할 수 없고 객관적 조사로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해독과 공항 주변의 제반 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grace17@metroseoul.co.kr

아시아나가 옆 아시아나기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충돌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파손된 채 28L 활주로에 놓여있는 가운데 9일(현지시각) 같은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美 교통안전위 "충돌 당시 권장속도보다 58㎞ 느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충돌 당시 착륙 속도가 착륙 권장 속도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9일 사고기 충돌 3초 전 항공기 속도는 103노트(191㎞), 충돌 당시 속도는 106노트(시속 196㎞)였다고 밝혔다. 착륙 권장 속도는 137노트(시속 254㎞)다.

사고기의 블랙박스 비행자료 기록장치(FDR)를 분석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면 양력(물체에 수직으로 받는 힘)이 감소하는데 양력이 중력보다 작으면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항 레이더 분석 결과 사고기의 활주로 접근 각도는 충돌하기 전까지 정상이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한국인 객실승무원 8명을 포함해 전체 39명이며 대부분 큰 고비를 넘기고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블랙박스 분석을 위해 파견한 조사관과 전문가 등은 10일(미국시간) 도착 즉시 현지 NTSB와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건강 악화' 이재현 회장 검, 구속 기간 연장키로

검찰이 건강 문제가 제기됐던 이재현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일 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0일부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 "개인적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매일 소환돼 조사를 충실히 잘 받고 있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두기자

"삼계탕 처음 보니?"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9일 서울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직접 만든 삼계탕을 보며 아이와 함께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고난도 통계도 튜터가 있어 '한방에 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작이 좋다!' 캠페인 ⑦ 정보통계학과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신·편입생들이 입학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튜터 제도가 있다. 석·박사들로 구성된 튜터들은 학사 일정을 안내하고 전국 47개 캠퍼스에서 직접 강의하며 학생들을 지원한다. 메트로신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함께 '시작이 좋다!' 캠페인을 통해 학과별 튜터를 소개한다.

한국방송통신대 정보통계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1학기 엠티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방송대 제공

유독 많은 전문직 학생들 깨알같은 지도에 감탄사
"학사전반 안내·학습 지원·소통 담임선생님 같아요"

정보통계학과 튜터 곽화봉(40)씨는 튜터의 역할로 세 가지를 강조했다. 원격학습 방법, 학사 일정, 시험 준비법 등 학사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한다. 또 오프라인을 통한 학습 지원도 튜터의 역할이다. 전산통계 전공 이학박사인 곽 튜터는 학과 내에서 통계학개론과 대학수학을 맡고 있다.

곽 튜터는 "학생들의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격려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담당 학생은 222명으로 서울·인천·강원·충북·대전·충남·대구·경북 등 지역 학생들을 담당한다. 군부대인 101경비단과 뉴욕 학생들도 곽 튜터 담당이다.

학생들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등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역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가장 많다.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소개했다. "학기 초에는 학사와 관련된 질문이 많다. 6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하는가(방송대는 기본적으로 매 학기마다 학년·학기별로 6과목이 주어진다.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쉬운 과목은 무엇인가, 3학년이 1~2학년 수업을 들어도 되는가, 실습 시험은 무엇인가 등 수강 신청부터 수업 방식 등 학사제도에 관한 질문이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출석 수업에 관한 질문이 많다. 시간표, 과제물 시행방법 등 모든 것들이 공지돼 있다. 곽 튜터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어 "마지막으로 시험 기간이 되면 튜터링 과목 외에도 다른 과목까지도 질문하는 등 그야말로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며 학생들과의 긴밀함을 말했다.

IT업계에서 시스템 구축을 맡고 있는 정보통계학과 3학년 김성찬(39)씨는 업무가 통계와 연관이 많아 편입한 경우다.

김씨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지만 재밌게 설명해 줘 이해가 쉬웠다"며 "평상시에는 튜터 사이트를 통해 편하게 질문하면 바로 답해주곤 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방송대의 학습 지원 제도인 튜터 제도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호응을 얻고 있다.

정보통계학과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이 다닌다. 특히 해마다 방송대에 100여 명의 의사가 새로 편입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과가 정보통계학과다. 각종 자료를 보거나 연구를 할 때 필요한 학문이라는 게 그들의 증언이다.

정보통계학과는 교양 수준의 과목부터 전문가가 필요한 과정으로 세분화돼 품질경영·사회조사 분석·컴퓨터 통계 분석·의학통계 교육·데이터 분석 등 다섯 개 분야에서 교육이 이뤄어진다.

한편 방송대는 개교 41년 만에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김유리기자

여론조사기관·병원 등 다방면 진출

■ 방송대 정보통계학과는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가는 21세기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정보를 조사·분석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품질·여론·금융·생명과학·국가통계 데이터를 컴퓨터를 활용해 분석·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데이터 및 정보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기관, 품질관리 분야,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의 연구·조사 분야,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 병원, 암센터 등과 같은 생명과학 연구 분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 다른 학문과 연계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박사로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문의 02)3668-4660
stat.knou.ac.kr

사모님 덕에 먹고사는 심부름센터

"남편 불륜 현장 잡아달라"
의뢰인 셋중 한명은 주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호텔 안에 현장 좀 잡아주세요."

심부름센터의 최고 단골은 가정주부고 주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심부름센터의 개인정보 수집·폭행·협박 등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33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뢰 대상자의 소재·연락처 확보 등 사생활을 불법으로 조사한 행위가 27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불법 제공 7건(18%), 불법 위치추적 5건(12%), 폭행·협박을 통한 채권 추심이 1건(2%)이었다.

불법 행위를 의뢰한 567명 가운데 적다. 직업군은 주부(196명 34%)였다. 회사원 152명(27%), 자영업자 78명(14%), 전문직 35명(6%), 기타 106명(19%)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이 342명(60%)으로 남성(225명 40%)보다 많았다.

경찰은 의뢰인들이 주로 배우자의 불륜 등을 의심해 심부름센터에 이런 행위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검찰경찰청은 50여 명으로부터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 등을 받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미행하는 수법으로 사생활을 조사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기자 mis@metroseoul.co.kr

소믈리에들의 '코코코' 제12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결선 진출자들이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결선에 출전, 와인을 시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가산2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가산2·시흥10 정비예정구역을 9일 해제했다. 금천구는 두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40% 이상이 사업 해제를 요청했고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적 요건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만9000km 달리는 '아메리카의 맨발'

metro Chile

30대 캐나다인 대륙종단 스타트—"체 게바라 모터사이클 여행처럼 한계에 도전"

"아메리카 대륙 맨발로 달려서 종단할 거예요."

'맨발 달리기'로 세간의 화제를 낳고 있는 엘렐냥 조지프 카이즈(32·사진) 중국인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캐나다 국적의 달리기 선수다.

카이즈는 지난 2일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목적지로, 캐나다 콘트라올에서 맨발로 출발선을 끊었다. 그는 캐나다·미국·멕시코·과테말라·페루·칠레·아르헨티나 등 14개국을 통과하며 총 1만9000km를 달릴 예정이다.

카이즈는 멕시코 몬테레이기술대학교 재학 시절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로 헤어디니던 캐나다의 콘코르디아대학으로 학교를 옮긴 뒤 아메리카 대륙 종단의 꿈을 품었다.

그가 맨발로 아메리카 대륙을 달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비슷한 도전은 몇 번 있었지만 혼자 배낭에 식량을 넣고 맨발로 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체 게바라의 모터사이클 여행과 산소 공급기 없이 총 8000m 이상 14개의 산을 혼자 등반한 이탈리아 등산가 라인홀트 메스너에게서 영감을 얻었죠."

특히 카이즈는 "맨발로 달리면 신발을 신었을 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무엇보다 여정에 필요한 운동화 7~8켤레를 사는 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맨발로 달리면 15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며 "자고 마시고 먹는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가방에 어느 정도 준비돼 있지만 부족할 것 같다. 여정 중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이즈는 하루에 25km씩 두 차례, 매일 50km가량 달릴 생각이다.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4년 12월이나 2015년 초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

/호르헤 일마티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120억 받고 1조 특혜 줬는데 솜방망이 처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류즈쥔 전 중국 철도부장(장관)에게 사형유예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여성 사업가 딩수먀오 등 뇌물 공여자들에게 30억 위안(약 5345억원)가량의 특혜를 제공한 류 전 부장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류 전 부장은 철도부에 재직한 동안 딩수먀오 등 기업인과 부하 11명으로부터 각종 사업상의 특혜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6460만 위안(약 121억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비리를 저지르고도 류 전 부장이 사형을 면하자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에 중국 언론은 법원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의 [illegible]은

中철도부장 사형유예 판결 "명백한 봐주기다" 비판여론

"류 전 부장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각종 범행을 자백했으며, 뇌물을 모두 반환한 점을 인정해 사형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 국민에게 정의를 보여라" "관리들끼리 서로 봐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자기 활로를 위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미기자

불 밝힌 '워싱턴 모뉴먼트'

2011년 8월 강진 이후 수리공사에 들어간 미국 워싱턴DC의 명물 '워싱턴 모뉴먼트'가 8일(현지시간) 화려한 조명등으로 단장한 새 모습으로 등장했다. 높이 169m에 달하는 이 기념물을 덮는 야간 조명등이 모두 488개 설치됐으며 앞으로 자동 통제와 함께 빛을 발하게 된다. /AP 연합뉴스

신한금융그룹
환전만 해도 혜택이 가득~
푸짐한 선물이 가득~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축제를 맛보다!

market index (9일)

코스피 1830.35 (+13.56)
코스닥 519.34 (+3.49)
금리 2.99 (-0.01)
환율 1138.50 (-11.50)

뉴스&뉴스

스마트폰·반도체 수출 급증

●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올 상반기 IT 수출을 이끌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상반기 IT 수출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0.9% 증가한 812억4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67억5000만 달러 많은 4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대전화 수출은 31.6% 증가한 116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스마트폰은 15.1% 많은 59억1000만 달러, 부품은 61% 많은 54억30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며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8.6% 많은 264억50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박상준기자

10대 기업 시총 비중 감소

●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36% 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체 시가총액 1184조원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4.1%에 그쳤다.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말 35.8%에 달했지만 올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말 35.3%에 이어 지난달 말 35.2%로 내려갔다. 특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224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17.74%를 차지했지만 이달 들어 비중이 15.8%까지 떨어졌다. /김민지기자

롯데카드 할부금융업 진출

●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카드 영업뿐만 아니라 할부금융업까지 하겠다고 지난 5월 금감원에 등록했다. 이로써 신한카드, 삼성카드에 이어 카드사로는 세 번째로 할부금융업을 하게 됐다. 롯데카드가 할부금융업에 진출한 이유는 자동차 할부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출이나 수수료 수익이 줄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이 고육책으로 할부금융 시장까지 넘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락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국장 직대	김관흡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81

2002년 5월 3일 창간

CEO 학벌파괴…SKY출신 40% 아래로

재계의 학벌 타파 바람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9일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유니코써어치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상장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1271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일컫는 SKY대 출신 최고경영자(CEO)는 502명(39.5%)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SKY대와 비(非)SKY대 출신 CEO 간 비율이 2007년 6대4에서 2012년 4대6으로 역전된 데 이어 다시 3대7로 바뀌는 중이다.

서울대 출신 CEO는 259명(20.4%)으로 2위 고려대(125명, 9.8%)와 3위 연세대(118명, 9.3%)를 합한 CEO 숫자보다 많았다. 한양대(90명), 성균관대(50명), 중앙대(40명), 한국외국어대(36명), 부산대(31명), 경북대 및 경희대(각각 26명), 서강대(24명) 순이다. 전공별로는 경영학 출신이 20.7%로 가장 많았고 경제학(7.0%), 기계공학(5.5%), 화학공학(4.6%), 전자공학(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

카드 항공사망보상 중단

업계 9월부터 상해보험 서비스 항목서 제외

사망 시 최고 5억원을 지급하는 신용카드사의 항공 사망보험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중단된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객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롯데·현대·하나SK 등 대형 카드사들은 9월부터 사망보험을 뺀 항공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 서면동의 규정탓 불가피"

카드사들의 이같은 조치는 감독당국이 사망 담보 보험에 대해서는 개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변경해서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보험사들은 규정 변경을 이유로 카드사에 항공 상해보험 제휴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신용카드 항공 상해보험은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카드 회원에게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상해뿐 만이니라 사망까지 무료로 담보해주는 단체 보험 상품이다. 현재 1000만 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시아나기 참사 시점에 논란

그러나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참사로 2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들이 개별 동의를 받더라도 기존의 카드 고객에 대해서는 항공 사망 담보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 담보는 반드시 개별 서명이 필요하도록 규정이 바뀐 상황"이라며 "사망 담보를 뺀 카드 상해보험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자 min@metroseoul.co.kr

일주일 더 키워 더 달콤한 신자두 롯데마트가 9일 서울역점에서 경산·의성·김천 지역의 300m 이상 고지대에서 재배한 산山자두를 선보이고 있다. 고지대에서 자란 자두는 일반 자두에 비해 재배기간이 5~7일 길어 일반 자두의 당도보다 1~2브릭스(brix) 높다. /정일뉴스

'가계빚 1099조' 소비 힘든 수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분석

국내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9일 '민간소비 부진 개선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소비 부진 상황과 중장기적인 소비 부진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소는 "2012년 가계금융부채 규모가 1099조원에 달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도 155%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점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 시장 부진 등으로 가계의 디레버리징(차입 청산)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출구전략 등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대시켜 소비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 외에도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도 소비 부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가구주 연령이 50~60대인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2000년 80%대에서 지난해 70%로 급감했다.

이 연구소의 김관중 연구위원은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노후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기 어렵고, 공적연금의 보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소비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온가족 '올레스쿨'서 열공!
KT는 스마트 러닝 서비스 '올레스쿨'을 프리미엄 등 가족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한 기념으로 다음달 11일까지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월 정액 5000원으로 최대 5명까지 연령대별 학습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KT 제공

연내 임대아파트 1만7387가구 공급

올 연말까지 전국에 임대아파트 1만7387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부동산써브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올 연말까지 전국 42개 사업장 총 1만738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30년) 26개 사업장 1만3466가구 ▲장기전세주택(20년) 12개 사업장 3439가구 ▲영구임대주택 4개 사업장 482가구다.

올 2월 SH공사가 공급한 23차 장기전세 청약 접수 결과 452가구 모집에 1만56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3.4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올 하반기 공급될 임대주택들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유망 택지지구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세곡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등에서 물량이 쏟아진다. 경기도는 남양주 별내, 화성 향남, 평택 소사벌 등 여러 지역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지방은 대전 노은3, 울산 금석, 전북 혁신, 속초 조양 등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하반기에 공급하는 임대주택들은 입지가 뛰어난 데다 임대료가 저렴해 경쟁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민지기자

뉴스 & 뉴스

삼성전자 14위 등 국내 14개사 '글로벌 500' 기업에

● 삼성전자 SK홀딩스 등 14개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9일 포천 인터넷판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14위를 기록했다 SK홀딩스는 지난해 65위에서 57위로, 현대차는 117위에서 104위로 각각 순위를 높였다

포스코(167위) 현대중공업(206위) LG전자(225위) 한국전력공사(235위) GS칼텍스(239위) 기아차(252위) 한국가스공사(365위) S-Oil(371위) 현대모비스(426위) 삼성생명(427위) LG디스플레이(447위) 등도 500위 안에 들었다 /서국원기자

진화하는 공기방울 세탁기
동부대우전자가 14~15kg급 2013년형 뉴 공기방울세탁기 신모델 2종을 출시했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114앱 검색순위 보니 '치킨집 전화번호' 제일 궁금

● 전화번호 검색 앱의 상위 검색 10위권 중 8개가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KT 계열사 KTCS는 전화번호 검색 앱 스마트114 의 상반기 검색 건수 분석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검색 순위 1위는 치킨이었다 이어 중국집, 피자, 족발보쌈, 김밥, 한식횟집, 닭오리, 패밀리레스토랑 순이었다

요식업이 아닌 업종은 3위 병원과 8위 콜택시뿐이었다

지난해 10위권 안에 있던 숙박 대리운전 차량 정비는 모두 10위권 밖으로 순위가 밀렸다 /장윤희기자

길어진 '구조조정 리스트'

금감원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금주 발표…작년 36곳보다 늘듯

장기 불황 여파로 대기업 4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C/D등급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등급 대기업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D등급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자율적으로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올해 구조조정 대상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채권단은 1806개 대기업 중 549곳을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설사 조선사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 등 3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40여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취약 업종의 실적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올해는 철강·석유화학 시멘트까지 취약 업종으로 선정돼 평가 대상이 584곳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최 원장은 "구조조정 대상이 늘었지만 지난해와 달리 D등급보다는 C등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평가가 기업의 퇴출 보다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잣지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36곳 가운데는 C등급이 15곳, D등급이 21곳이었다

최 원장은 "워크아웃은 기업의 회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전 금융사가 대출을 회수하는 등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대 그룹 가운데 6개 그룹의 투자와 4개 그룹의 채용이 연초 계획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자신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투자 고용 환경을 조사한 결과 올해 투자가 연초 계획보다 확대될 예정이라는 그룹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곳에 6개 그룹(20%) 연초 계획 수준이라는 답변은 23개 그룹(76 7%)이었다

/박상훈기자 ant@metroseoul.co.kr

아니 벌써! 2013 햅쌀 첫선 9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통해 올해 가장 빨리 수확한 여주산 햅쌀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애플 iOS7 베타3 공개

애플이 최신 운영체제 iOS7의 개발자용 베타3 버전을 8일 미국 현지에서 공개했다 iOS7 베타3는 부팅 속도가 빨라지고 앱 그림자 추가, 블루투스 키보드 입력 향상 등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이 개선됐다

좀더 부분의 투명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도 눈에 띈다 음성명령 기능 시리에 한국어 도움말 기능도 추가됐다

다만 스티브 잡스 생존 시절만큼의 혁신은 없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국내에서는 특정 앱 통김 현상이 여전하고 스마트폰 범강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식 버전은 9월 말 배포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입지좋은 영등포 탐나는 복층 오피스텔

포스코 A&C '힐앤하임' 분양

최근 복층형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포스코A&C '힐앤하임'은 310실(계약면적 44.51㎡·서비스면적 포함) 모두 복층형 구조로 설계돼 있어 개방감이 우수하다

주변에 GS홈쇼핑 본사와 LG전자 강서빌딩 서울국제금융센터 등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단지 가까이에 안양천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조깅 자전거 등의 여가 활동도 가능하다 5호선 양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도로 등의 도로망 이용도 수월하다

문의 1599-4913 /서국원기자

The Legend of Musical
진정한 뮤지컬레전드를 만나라!!
과연 누가 누구를 조종했는가
쓰릴미
thrill me
정상윤 오종혁
2013. 5. 17 - 9. 29
신촌 The STAGE
THRILL ME The Leopold & Loeb Story Book, Music and Lyrics by Stephen Dolginoff
쓰릴 미

LC 잘하면 토익스피킹 생활영어 강하면 오픽

영어말하기 공인시험 공략비법

"토익 스피킹이 유리할까, 오픽을 보는 것이 나을까."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어 말하기 공인 시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구직자들이 많다. 시험 내용과 평가 방식의 차이가 커 자신에게 유리한 시험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도움을 받아 토익 스피킹과 오픽의 공략 노하우를 알아본다.

◆순발력 뛰어나다면 토익 스피킹 –문제 유형이 정형화된 토익과 달리 스피킹은 순발력과 자신감을 갖춰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문제 풀이나 샘플 답안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다만 기존에 토익을 공부했던 사람, 특히 LC에서 고득점을 받는 수험생은 유리하다.

시험을 볼 때는 발음이나 문법보다는 말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 발음에 자신이 없다면 고급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요령이다. 기업들이 주로 5, 6등급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어학연수·외국생활 해봤다면 오픽 텍스트가 아닌 음성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듣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 영어에 강하고 어학연수나 외국 생활을 경험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수 있다. 12~15문제를 40분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배분하가며 대화를 이끌어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스스로 평가를 통해 개인별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난이도를 너무 낮게 잡거나 높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시험 전 테스트를 통해 적당한 난이도를 미리 측정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자기 수준과 같거나 한 단계 낮은 등급을 고르는 게 좋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중간 등급을 요구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국명기자 leelee@metroseoul.co.kr

'멋진 취업' 꿈꾸는 고3 모였다

취업희망캠프 피혁·패션과정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이 대학 대신 피혁·패션 전문가의 길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10일부터 3개월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3 학생 30명 안팎을 대상으로 취업희망캠프 피혁·패션 전문기양성 과정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4월 취업희망캠프 성공 최고경영자(CEO) 특강과 5~6월 성동 종합재선지원센터의 1일 취업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들 중 선발됐다.

서울시는 기방 구두 분야로 나누어 3개월간 매주 2차례 성동 종합재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께는 수료생과 20여 개 피혁·패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채용 오디션을 열어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되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개 채용 오디션 결과 채용되는 취업생에게는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채용 기업에는 최대 84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이국명기자

주간 채용캘린더

일자	기업
10(수)	서울시설공단/서울풍물단[illegible] 한국시설안전공단 삼성중공업기술연수원[illegible]
11(목)	[illegible] GS[illegible] 도요타[illegible] 코리아(경력)
12(금)	[illegible] 대전테크노파크
13(토)	한국[illegible] [illegible]
14(일)	포스코(경력) 한국[illegible]연구원, 조선호텔[illegible] 국제[illegible]재단 한국[illegible]연구원
15(월)	[illegible] 대한항공[illegible] [illegible] 신사고
16(화)	[illegible]연구원, EA 코리아 [illegible]코리아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12일 고졸자 대상 취업박람회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12일 수원공고에서 경기도 고졸(예정)자 취업박람회(www.intoin.or.kr/[illegible]job)를 연다. 행사에는 SK커티즌, 케이에스씨 등 36개 기업이 참가해 1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취업 컨설팅, 직업심리검사 등 부대 서비스도 제공된다.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 검색어

1위 편의점 최저임금
2위 직업별 남녀 동급표
3위 성적계산기
4위 경력직 채용 활발
5위 고임금 아르바이트
* 6/3~7/9까지 인기 검색 순위

OD Musical Company & CJ E&M present

21세기 최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온다!

뮤지컬 아메리칸 이디엇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2013. 09. 05 ~ 22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활기찬 중년건강, 관절 체크부터!

네이처케어의 건강기능식품 '건강한 관절'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25년째 워킹맘으로 살아온 김이화(51)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회사 일과 집안일에 쫓기며 살다 보니 정작 본인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지만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과는 달리 가만히 있을 때에도 무릎이 쿡쿡 쑤시고 가끔 관절이 부어올라 혹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는 달리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연골이 전부 마모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통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평소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장시간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있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되도록 피하고,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관절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분을 보충해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좋은 네이처케어 '건강한 관절'

타파웨어 브랜즈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케어(NaturCare)가 출시한 '건강한 관절'은 관절 및 연골 건강, 수분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아세틸글루코사민과 뮤코다당 단백, 초록입홍합 분말, 히알루론산, 비타민 C, 콜라겐 등이 부원료로 함유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관절의 연골세포를 구성하는 히알루론산과 콘드로이틴 등을 생산해 연골세포의 생산을 돕고, 윤활 작용을 하는 윤활액 생성을 증가시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특히 네이처케어 '건강한 관절'의 경우,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껍질을 이용해 특허받은 발효효소공법으로 생산한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사용했으며, 이 원료는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절 및 연골 건강, 피부 보습에 좋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관절 및 연골 건강은 물론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다. 네이처케어에 따르면 인체 시험 결과 N-아세틸글루코사민 섭취 후 보행 능력, 계단 승강 능력 등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됐다. 또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시험 결과, N-아세틸글루코사민 섭취 후 얼굴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전신 피부의 건조가 개선되었다.

한편 건강한 관절은 한상자에 한 달 분량(30포)으로 구성됐으며 스틱포 형태로 물에 다시 하루 1회 음료처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문의 www.tupperware.co.kr (080)023-8811(타파웨어 브랜즈 고객센터) /신화준기자

어게인! 블루캐니언의 추억

메트로신문 홈피 사연응모 5명 추첨 종일권 2매씩 증정

메트로신문이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과 함께 애독자 여러분을 시원한 여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30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가족, 친구, 연인과 떠났던 여름 여행 사연을 사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 종일 입장권(1인 2매)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수요일자 신문에 발표되며 매주 5명씩 총 30분의 애독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는 메트로신문사를 방문해 종일 입장권을 찾아가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차 당첨자 명단

이번주 당첨자는 김선*, 김은*, 한영*, 임원*, 김자*님입니다. 이중 2명의 응모글과 사진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김선*

둥둥이 딸이 처음엔 바닷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더니 금세 적응을 하더라고요. 요즘 물놀이 가자고 성화가 대단하답니다.

▶김자*

제가 외식업체에서 일을 해서 주말에는 잘 못 쉬는데, 일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아하던 두 아이의 모습 다시 보고 싶네요.

디오스 냉장고 만드는 김태희

LG전자 디오스(DIOS) 냉장고 광고모델인 배우 김태희가 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냉장고 연구소를 찾아 냉장고 제작공정을 체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910ℓ 대용량 냉장고 'LG 디오스 V9100' 판매 10만 대 돌파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치현기자 [illegible]

삼계탕의 계절 '꼬끼오~'

13일 초복 앞둔 유통업계 '서울대닭' 메기매운탕 등 푸짐한 보양식 기획행사

오는 13일 초복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보양식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올여름에도 삼계탕 재료가 맨 앞에 섰다. 이가에메기매운탕, '서울대닭' 등 이색 보양식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마트는 11~16일 5대 대표 보양식을 선정해 최대 30% 할인판매한다. 3마리로 기획한 삼계세트를 시세 대비 20% 저렴한 가격에 5만 봉 준비했으며 영계(500g) 15만 마리, 삼계탕 영계적 세트를 5만 팩 기획해 시세 대비 15%가량 싸게 판매한다.

롯데마트도 11~17일까지 백숙용 닭, 전복, 장어 등 이름철 보양식을 최대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백숙용 큰 닭(1kg 이상·5500원)이며 30만 마리를 준비했다.

유플러스는 11일부터 '유플공 보양식대전'을 실시, 매장에서 직접 끓여주는 즉석 삼계탕(7980원)을 선보인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보양식인 '민물 메기매운탕'도 내놓는다. 민물 메기매운탕은 3~4인 가족 기준으로 포장해 열을 이용해 조리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격은 9800원이다. 이와 함께 활전복(55g·3300원), 생물낙지(100g·3980원) 및 한우 사골(1.3kg·1만5800원), 한우 우족(1.3kg·3만4800원) 등 다양한 보양식을 준비했다.

온라인몰에는 '서울대닭'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11번가는 초복을 맞아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닭고기 전문기업 마니커와 공동 개발한 닭고기 브랜드 '닭터의 자연'을 단독 유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마니커의 산학 협력 법인 'S&마니커'의 첫 브랜드이며 유산균제만 첨가한 사료로 키운 친환경 닭고기다.

옥션은 12일까지 하림 삼계탕용 영계 1마리(530g)를 2500원에 내놓고 총 2만 마리를 무료 배송한다.

/신화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스페라 에너지 담은 셀루스 장신구

건강제품 전문기업인 레노베티오가 스페라 에너지를 이용한 셀루스 장신구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별똥 운석을 비롯해 규조토, 춘천옥, 자수정, 토르말린 등 15가지 자연 광물을 혼합해서 나노 이하의 단위로 세분화해 주입, 스페라에너지를 발산해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레노베티오 관계자는 "스페라 에너지는 최근 대체 의학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있다"며 "MRT연구소의 생명정보인지 장비로 측정한 결과 순환기능 및 면역력 강화, 소염, 근력 강화, 통증 경감 등에 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혈액순환 장애자,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수험생, 장시간 운전자, 운동선수 등이 착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현재 프로야구 각 구단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www.renobetio.com 032)832-5410

/신화준기자

책 한 컷

캠퍼男의 거실 '캠핑장 온돗' 혼자 사는 남자의 방 엿보 수 있 ... 직장인 여행가이자 캠핑밴드 멤버인 김현수(35)씨네 거실. 벽체와 별채다운 인쪽으로 고볼 빨간 소파와 원목 가구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 남자의 방/김봉이 · 황권 등-

/박지원기자 @

새로 나온 책

자기계발

김난도의 내일 김난도 외 /오우아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출간하며 청춘 멘토로 자리잡은 김난도 교수가 청년 구직자와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담았다. 더불어 급변하는 잡 트렌드의 흐름과 ▲배움은 계속돼야 한다 ▲글로벌 잡마켓을 잡아라 ▲돈을 위해 일하지 마라 등 다섯 가지 일자리 전략을 제시한다.

설득을 이기는 설명의 힘 리 르페버 /미디어윌

유혹하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은 설명이라는 명제 하에 '설명 컨설팅'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연 커먼크래프트의 창업자인 저자는 자신이 성공한 것은 '제대로 설명하는 기술' 덕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설명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정리해 제시했다.

경제 경영

보노보 은행 이용수 외/부키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금융기관 사례 모음집.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윤리적 투자를 실천하는 독일의 GLS 은행, 시민 섹터를 지원하는 마을금고인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 환경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뉴 리소스 은행 등 우리 사회가 참고할만한 내용을 담았다.

사회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찰스 페로/알에이치코리아

현대인들은 아무리 효율적인 안전 장치를 동원해도 피할 수 없는 '정상 사고(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산다. 이 책은 정상 사고란 대체 무엇이며 무엇이 정상 사고를 초래하고 나아가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낸다.

청소년 어린이

퍽 고정욱/대림북스

'까칠한 재석이'의 작가 고정욱의 성장소설이다. 아이스하키에 미래를 건 우직하고 마음씨 착한 '영광'. 활달한 성격으로 주변에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는 '주리', 영광의 든든한 베스트프렌드 '주성' 등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일상을 유쾌하고 가슴 뭉클하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려내고 있다.

또 미트에 간 게 실수야 엘리즈 그라벨/토토북

재치 있는 이야기와 이기자기한 그림으로 올바른 소비습관을 길러주는 그림책이다. 몽땅미트에는 화려한 광고와 물건이 가득하다. 꼬마 봉도 그 꼬임에 넘어가 꼭 필요한 명키스페너는 사지도 않고 엉뚱한 물건만 잔뜩 사 왔다. 저자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카탈로그를 시작으로 과소비에 대해 풍자하는 작품을 많이 그렸다.

웰메이드 공간의 힘 '치유'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에스더 M. 스턴버그 지음, 더퀘스트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 중이던 미국의 조너스 솔크는 연구가 난관에 봉착한 뒤 휴가차 방문한 이탈리아 아시시 마을에서 경이로운 경험을 한다. 햇빛이 가득한 종관과 천장 높은 성당에서 커다란 영감을 받은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한 솔크는 이후 샌디에이고 바닷가 도시 라호야에 아시시 마을을 닮은 솔크연구소를 지었는데 이곳에선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나 배출됐다. "과학자들의 상상력에 영감을 주고 싶었다"는 솔크의 뜻대로 이곳에서 신경 건축학회가 태동한다.

신경 건축학이란 공간과 건축이 우리 몸과 뇌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해 더 나은 건축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저자는 특히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에 주목했다. 자연 속에서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막연한 느낌을 호르몬 분비 대뇌활동의 변화 등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상관관계를 풀어낸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크고 작은 공간이

숲속 병실서 회복 빠르고 공원 많은 뉴욕 비만 적어

신경건축학의 사례들 통해 공간·건축의 중요성 강조

몸과 마음의 회복을 좌우한다"고 정리한다.

실제로 창문으로 작은 숲이 내다보이는 병실의 환자는 벽돌담이 보이는 병실 환자보다 진통제를 덜 맞고 회복도 빨랐다. 이런 결과가 병원 건축에도 적용돼 환자의 치유를 돕는 요소들이 적용된다. 요즘 병원 로비에는 그림이 걸리고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아가 저자는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나 쇼핑몰처럼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걷게 하고, 남들과 어울리게 하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도시 설계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미국 뉴욕의 사례는 반전 같은 흥미로움을 안긴다. 소음과 수많은 사람, 네온사인 등 스트레스 덩어리일 것 같은 이곳 사람들은 2007년 조사 결과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비만 비율이 가장 낮고 미국 평균보다 기대 수명이 9개월이나 길었다. 뉴욕이 치유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저자가 치유의 요소로 꼽은 것은 걷기였다. 공원이 가깝고 넓은 데다 흥미로운 볼거리로 가득 찬 도시 풍경도 치유를 촉진했다.

저자는 말한다. "자신에게 치유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는 장소를 찾으라"고. 어떤 공간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저자의 경우 그 장소는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원이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사람을 살리는 집 노은주 외/해담

집에 외적 요소를 따지기 이전에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행복한 삶을 담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집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유도한다.

아파트 박철수/작가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아파트들은 우리를 웃게 하는 공간일까. 지난 50년간 급속도로 팽창한 아파트의 단지식 개발 안에 담긴 사적 욕망과 공간정치학을 향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그 작가 그 공간 최재봉/공기메출판사

작가들에겐 '그 공간'이 있어 작품이 탄생했다. 시인 김경주의 '이리 카페', 소설가 정유정의 지리산 일자 등 국내 작가 29명에게 창작 공간은 어떤 의미인지 엿본다.

/전효정기자 kwon@

1996년의 소년소녀들아, 요즘 어떠니

화제의 책

안녕, 내 모든 것 정이현/창비

'달콤한 나의 도시'로 2030 도시 여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정이현 작가가 서태지와 아이들, 삼풍백화점 붕괴, 하이텔 PC통신 등 1990년대의 아릿한 향수를 간직한 이들의 마음을 흔든다.

부유한 조부모의 집에 얹혀사는 사실을 숨기는 세미, 반복적으로 욕설을 내뱉는 '뚜렛증후군'에 시달리는 준모,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 천재 지혜. '안녕, 내 모든 것'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축축하고 무더웠던 여름의 한가운데를 함께 통과한 세 명의 아이들이 나누는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10대 추억 나눈 친구 통해 40대 접어든 이들에 위로

서로의 상처를 언제까지고 감싸줄 수 있을 것만 같던 세 명에게도 변화는 찾아온다. 가족의 죽음, 원하지 않았던 자퇴와 입시를 겪으면서 삶의 무게를 실감하게 된 소년과 소녀들은 힘들 때면 한강 잠원지구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셋만의 시간을 서서히 떠나보내게 된다. 그리고 1996년 봄, 스무 살을 딱 한 해 앞둔 세 명의 친구들은 마지막 파티에서 비밀을 나눠 가지며 10대를 마무리한다.

성인이 되어 우연히 다시 만난 세미와 지혜가 외국으로 떠난 준모의 이야기를 꺼낸 뒤에야 겨우 '요즘 너의 삶은 어떠니'라고 물을 용기가 났던 것처럼, 이야기는 평범했지만 결코 평이하지 않았던 90년대를 보낸 젊은이들에게 안부와 위로를 건네며 끝을 맺는다.

/권보람기자

metro entertainment E

레게 음악실험 제대로 먹혔죠

노랫말처럼 사랑도 잡힐까

2NE1

1년간 연방을 비웠지만 2NE1의 파괴력은 여전했다. 8일 신곡 '폴링 인 러브'를 발표하자마자 이튿날 국내 모든 음원차트 정상을 싹쓸이했다. 7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를 달리는 중이며, 남미·유럽 등 세계 전역 차트에서 빠르게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8일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이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거침없는 질주를 예고했다.

–공백기가 길었는데 이 정도 성공을 예상했나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처음 시도하는 레게 장르라 노래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성적보다 멋진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에만 집중했다. 오래 쉬었는데 사랑을 잘 걸었다. 이제 단립 준비가 됐다. (씨엘)

–레게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아이 돈 케어', '파이어' 등 이전 곡들에서도 레게 성향을 녹여서 불렀다. 친숙하고 즐기던 장르다. (공민지)

–독특한 곡 분위기에 걸맞게 안무도 눈길을 끈다

상체고 힘이 많이 늘어간 퍼포먼스만 하다가 부드럽고 살랑대는 춤을 추게 된 건 도전이다. 유연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허프춤'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손동작도 복잡하다. 네 명의 춤 스타일이 달라 함께 맞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산다라박)

–뮤직비디오에서는 훌쩍 스무 살이 된 막내 공민지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춤 연습은 물론 운동도 많이 했다. 그동안 악동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여성스럽고 귀엽고 상큼한 모습까지 보여주겠다. (공민지)

원래 민지의 별명이 '에로 민지'다. 어리지만 타고난 섹시한 매력이 있다. 이제 그동안 못 했던 컬런 공연에서 19금 콘서트도 가능하다. (씨엘)

–이번 파격적인 변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부담이 덜했던 게 이미 많은 곡을 준비했고 각각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다. 준비를 많이 해뒀기 때문에 빨리 보여주고 싶다. (씨엘)

곡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콘셉트가 떠오른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평범하지 하고 나온 게 오히려 이전과 차별되는 것 같다. (산다라박)

–10월까지 매달 한 곡씩 신곡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끝났나

곡은 다 만들어져 있다. 이미 다음달 발표할 싱글 활동도 준비 중이다. (씨엘)

–공백기 동안 어떻게 지냈나

월드투어를 마치고 컴백을 준비하면서는 복근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라면을 끊은 지 한 달 됐다. 여름이라 항상 배 노출 의상에 대비해야 한다. 예상대로 의상팀에서 노출을 요구했다. (산다라박)

–지난해 월드투어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다

여러 나라의 팬들을 만나고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이 늘었다. 이번 활동 이후에도 공연을 할 것이다.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민지)

–2NE1은 강한 여성의 이미지였는데, 지난해 '아이 러브 유'나 이번 곡에서는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로 바뀌었다

언제 이런 노래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여성적인 매력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 노래 가사처럼 사랑에 푹 빠지고 싶다. 사랑한다면 감정 표현이 훨씬 잘할 테니까. (산다라박)

–연애를 하는 데 제약이 있나

언니 라인(박봄·산다라박)은 지난해에 연애 금지가 풀렸고, 동생 라인(씨엘·공민지)은 내년부터 연애할 수 있다. 막상 금지가 풀리니 남자가 없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노래처럼 사랑에 빠지는 거다. (산다라박)

2NE1의 산다라박·공민지·박봄·씨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멤버들 댄스 스타일이 달라 하프춤 맞추는데 오래 걸려

그룹 막내 별명 '에로 민지' 여성적 매력 많이 보여줄 것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star bag

예정보다 일주일 빨리 득남

방송인 겸 가수 하하와 가수 별 부부가 득남했다.

지난해 9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달 후 화촉을 밝힌 이들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7월 9일 오전 3시15분 하나님의 꿈 드림이(태명)가 지금 저를 보고 있네요. 저 엄마 됐어요"라며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나온 효자 아들 드림이"라고 별의 출산 소식을 알렸다.

"지난주 퇴원… 복귀 아직"

골반 타박상으로 입원했던 애프터스쿨 나나가 지난주 퇴원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소속사는 9일 "상태가 좋아져 4일 퇴원한 뒤 현재 숙소에 머물고 있다"며 "무대 복귀 시기는 몸 상태를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나는 지난달 19일 MBC뮤직 '쇼 챔피언' 사전 녹화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다쳤다.

'꽃보다 할배' OST 참여

중견 트로트 가수 주현미가 케이블 채널 tvN '꽃보다 할배' OST에 참여했다.

제작진은 9일 "주현미가 부른 OST '2013 대지의 항구' 음원이 12일 낮 12시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 노래는 1937년 가수 백년설이 발표한 원곡을 주현미가 힙합 사운드의 도움을 얻어 특유의 감칠맛 나는 음색으로 재해석했다.

공연 예매 15분만에 매진

JYJ 김준수가 아시아투어를 앞두고 매진 행렬을 시작했다.

9일 소속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 시작된 'XIA 아시아투어 콘서트 인크레더블 인 서울' 예매는 15분 만에 1만6000석이 모두 팔려나가며 마감됐다. 10일 2차 티켓 예매를 진행하지만 취소 티켓이 발생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김준수는 15일 정규 2집을 발표한다.

단언컨대 완벽한 식스팩 월드스타 이병헌이 세 번째 할리우드 출연작 '레드: 더 레전드'를 위해 다듬은 조각 몸매 가 9일 공개됐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할리우드에 출연한 그는 촬영 당시 트레이너의 도움 없이 홀로 식이요법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완벽한 식스팩을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 다음달 10일이면 이 몸매의 주인이 한 명 더 늘겠죠. /조성준기자 when@

연기 데뷔작 '감시자들' 흥행 이어 일본 5개 도시 콘서트도 일찌감치 매진

겹경사 맞은 '영화돌' 준호

2PM의 준호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배우와 가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준호는 연기 데뷔작인 영화 '감시자들'이 개봉 7일 만인 9일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쁨을 맛봤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공세가 시작된 여름 극장가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 중이다.

'감시자들'은 설경구·정우성·한효주가 주연을 맡은 영화지만 준호가 흥행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범죄조직을 쫓는 경찰 특수감시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서 준호는 감시반원 다람쥐 역으로 출연했다.

빠르고 역동적인 영화 전개 특성상 주연배우에만 의지하지 않고 조연들의 고른 활약이 돋보인다. 준호가 맡은 다람쥐는 빠른 두뇌 회전과 민첩한 몸놀림으로 감시반의 에이스 역할을 하며, 영화의 긴장감을 높여가는 인물이다.

감시반 황반장을 연기한 설경구는 "준호가 데뷔작으로 좋은 작품

'감시자들'의 한 장면

을 만난 것도 좋은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역할을 잘해냈다. 좋은 배우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며 "현장에서도 다람쥐 같았다. 늘 에너지가 넘치고 상황을 빠르게 이해했다. 싹싹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화 무대인사로 바쁜 일정을 소화한 준호는 8일 일본으로 출국해 두어 준비에 들어갔다. 9월 삿포로를 시작으로 후쿠오카·오사카·나고야·도쿄 등 5개 도시에서

'카미노 코에' 재킷

디음달 말까지 12회 공연을 치른다. 공연 티켓 예매에는 정원의 2배가 넘는 관객이 신청해 일찌감치 매진됐다.

또 일본에서 첫 솔로 앨범 '카미노 코에'를 24일 출시한다. 전곡을 직접 작사·작곡·프로듀싱했다. 타이틀곡 '카미노 코에'가 2일 모바일 차트 레코초크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수록곡 '아이 러브 유'가 공개 이틀 만인 9일 정상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소녀시대 애국가 부르고 시구한다

류현진-추신수 맞대결서

걸그룹 소녀시대가 한국인 메이저리거 류현진과 추신수의 빅매치를 현지에서 직접 응원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9일 "태연·티파니·써니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고 시구자로 마운드에도 오른다"고 밝혔다.

소녀시대의 다저스타디움 방문은 5월 티파니가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선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엔 LA 다저스의 류현진과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맞대결을 벌이는 자리인 만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여는 소녀시대가 한국관광공사 로스앤젤레스지사의 주최로 다저스타디움에서 경기 직전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성사됐다.

소녀시대는 경기 종료 후 다저스 회견장에서 진행되는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도 류현진과 함께 참여해 한국 알리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박진영기자 wlsdud7@

이하늬 CF로 美 안방극장 노크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이하늬가 CF 모델로 미국 안방에 진출한다.

이하늬를 모델로 2월부터 국내에 방영되고 있는 변비약 둘코락스의 한국 광고가 이달부터 6개월간 ABC·CBS·NBC·ESPN·TBS 등 미국 7개 지상파 TV 채널에서 방영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이 광고는 변비로 고민하는 건강 미인의 고민을 이용답고 판타지적인 영상으로 그려내 국내 여성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모델이 출연한 TV 광고가 미국 방송을 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 광고를 접한 베링거 인겔하임 미국 지사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좋은 평가를 얻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미스코리아 진이자 2007년 미스 유니버스 4위를 차지한 이하늬는 건강하고 서구적인 이미지를 지녀 해외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황순호기자

'신의' PD 출국금지 당해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건으로 피소당한 김종학 PD가 출국 금지 조처를 당했다.

9일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SBS '신의' 임금 및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 2월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로 피소된 김 PD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출국이 금지됐다.

그러나 김 PD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PD는 '신의' OST 판권을 여러 곳에 팔아 대금을 챙긴 혐의로도 피소된 상태다. /박진영기자

'안녕하세요' 사연 조작이라뇨?

KBS "약술 가족 방송내용 문제없다"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이하 '안녕하세요') 측이 사연 조작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진에게 확인 결과 타 방송에서 일벌시낭꾼으로 출연한 주인공의 아버지는 현재 27년차 공무원이며, 고민 주인공으로 출연한 아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8일 방송 내용에 대한 조작 논란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방송분에서는 한 남성이 출연해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약초를 캐고 지난 10년간 약술 3000병을 담가 생활이 불편하다는 고민을 들고 나왔다. 이 어머니는 방송에서 상업 목적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이 가족이 지난해 10월 방송된 MBN '리얼 다큐 숨'에 일벌시낭꾼으로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안녕하세요'에서 약술을 담그는 아내를 못마땅해했던 남편이 이전 방송에서는 일벌로 술을 담그고 판매용이 아니라던 약술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하경헌기자

film review

아날로그 더한 로봇·괴물 대결 신선하네

■ 퍼시픽 림

어렸을 적 일본이 제작한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과 괴수물을 즐겨 봤던 지금의 중장년층 남성이라면 '마징가 Z'와 '고질라'가 인류를 사이에 두고 맞짱 뜨는 모습을 한 번쯤은 머릿속에서 상상해봤을 것이다.

11일 개봉될 '퍼시픽 림'은 바로 이 같은 '꿈의 대결'을 그린다. 당연히 황당하겠거니 미리 속단하기 쉽겠지만 '웬걸' 눈 앞에서 펼쳐지는 말 그대로 로봇과 괴물의 '이종(異種) 격투기'가 보는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가까운 미래,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태평양 심해 속 구멍을 통해 나타난 '카이주'란 이름의 외계 괴물들이 인류를 위협한다. 전 세계 각국은 힘을 모아 카이주에 맞설 초대형 로봇 '예거'를 제작해 근근이 버틴다.

예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전투 도중 형을 잃고 전장을 떠난 롤리(찰리 헌냄)는 지구방위군 대장 스탁커 펜테코스트(이드리스 엘바)의 부름을 받아 다시 합류하지만,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새 여성 파트너 마코(기쿠치 린코)와의 호흡이 원활치 않다.

진화한 카이주들의 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스탁커는 카이주들의 본거지에 폭탄을 심으려 하지만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예거들은 태부족이다. 마침내 롤리와 마코, 스탁커의 결전의 파일럿 하나가 적의 심장으로 향한다.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첨단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빌리면서도,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연출자의 자세다.

메가폰을 잡고 시나리오 작업까지 겸한 길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헬보이' 시리즈와 '판의 미로 :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등으로 익숙한 멕시코 출신 거장이다. 리얼한 판타지를 추구하는 대가답게 애니메이션에서나 표현 가능할 법한 로봇과 괴물의 맨몸 한판 승부를 생생하고 거친 질감으로 그려낸다.

특히 인간 파일럿과 로봇이 드리프트란 신경 연결 장치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설정은 무척 고전적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고 기발하며 색다르다. 난데없이(?) 우주에서 날아온 로봇들이 인간들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선행을 펼치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와 얼핏 닮은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이유다.

현재로선, 아니 당분간은 로봇을 앞세운 SF 블록버스터의 '끝판왕'으로 군림할 듯싶다. 12세 이상 관람가.

장혁 너무 긴장했나 천하 사나이 장혁(오른쪽)이 미녀 곁에서 얼어붙었다. 장혁은 9일 열린 새 영화 '감기'(다음달 15일 개봉) 제작보고회 포토타임에서 수애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자 긴장한 듯 경직된 자세로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구조대원 지구 역의 장혁은 "촬영장 분위기는 (의사 인해 역의) 수애가 있고 없고로 구분된다. 수애가 오면 아름다운 도시에서 말끔한 느낌이고 수애가 없으면 그냥 재난의 느낌이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유순호기자 sune@·연합뉴스

손병호·윤제문 '친정' 연극으로 복귀

배우 손병호(사진 왼쪽)와 윤제문이 '친정'인 연극으로 복귀한다.

손병호는 11일부터 한 달간 대학로예술극장 3관에서 공연되는 '별의 축제'에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광현 역으로 출연한다. 그의 무대 나들이는 8년 만이다. 윤제문은 '피리부는 사나이'에서 중소기업 회장에게 자신의 인생을 비치는 윤부장을 연기한다. 이 연극은 다음달 4일까지 선돌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do you do? 직업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무슨 일을 하세요?
저 남자는 여기 학생인가요?
아니요, 그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반 학생인가요?
아마 경비원들일 거예요.

➜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 do you do?
Is that guy a student here?
No, he isn't.
Are you in my class?
Maybe they're security guards.

반복 훈련으로 자동 말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무엇을 do you do?
B I'm a marketer. I'm Sam Lee.

정답 What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don't know who she is. Maybe / Perhaps she's a doctor.

2 No, he / she isn't a professor.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be동사 과거시제 부정문

▶ was, were 뒤에 not을 쓰며 '~이 아니었다'를 의미한다

주어	동사	
I	was	not ~
you/we/they	were	
he/she/it	was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_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wasn't busy. 저는 안 바빴어요.
2 He wasn't in New York. 그는 뉴욕에 없었어요.
3 The traffic wasn't very heavy. 교통량은 아주 많지 않았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Consumers are advised to use caution when applying this product _______ fabrics that have been dyed by hand.
(A) at (B) to
(C) out (D) off

02. Greenleaf Press will soon publish a _______ pocket version of Manuel Santiago's book *An Insider's Guide to Travel in Argentina*.
(A) gathered (B) replaced
(C) condensed (D) acquainted

01.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손으로 염색한 직물에 바를 때 주의하도록 권장된다.
해설 'A를 B에 바르다'라는 apply A to B이므로 (B) to를 써야 한다.
어휘 consumer 소비자 use caution 조심하다, 주의하다 fabric 직물 dye 염색하다
정답 (B) to

02. 그린리프 출판사는 마누엘 산티아고의 책 「아르헨티나 여행 가이드」 를 축소한 포켓판을 곧 출간할 것이다.
해설 '축소된 포켓판'이 적합하므로 (C) condensed를 쓴다.
어휘 publish 출판하다 gathered 모은 replaced 교체된 acquainted 잘 아는
정답 (C) condensed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 속 사람 수 말하기

▶ There is/are + 사람 수 + in this picture: 사진 속에 ~명이 있습니다

There is one person in this picture.
There is one man in this picture.
There are three people in this picture.
There are several people in this picture.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 I can see + 사람 수 + in this picture: 사진에서 ~명을 볼 수 있습니다

I can see one person in this picture.
I can see one man in this picture.
I can see three people in this picture.
I can see several people in this picture.
I can se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4연승 넥센 부활!

넥센이 4연승을 내달렸다. 지난달 8연패를 당했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다.

넥센은 9일 목동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브랜든 나이트의 호투 속에 박병호가 쐐기를 박는 솔로아치를 그려 3-1로 승리했다.

4연승을 거둔 넥센은 1위 삼성을 바짝 추격하며 선두까지 넘보게 됐다. 최근 4경기에서 홈런 3개를 쏘아 올린 박병호는 시즌 17호를 기록, 역시 이날 홈런포를 가동한 최정(SK)과 공동 1위가 됐다.

넥센 마무리 손승락은 1⅔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24세이브를 기록했다.

LG는 잠실 홈경기에서 '막내' NC를 상대로 연장 10회말 이진영이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LG 이병규(9번)는 이날 4타수 4안타를 치는 등 지난 3일 한화전 세 번째 타석부터 9연타석 안타를 작성, 2004년 김민재(당시 SK)가 세웠던 최다연타석 안타기록과 타이가 됐다. 이병규는 또 개인통산 4번째로 1900안타도 돌파했다. 대전구장에서는 두산이 선발 노경은의 8이닝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최하위 한화를 5-0으로 완파했다. /[illegible]기자

프로야구 전적 9일

■잠실

NC	001	000	000	1
LG	000	001	001	2

■대전

두산	003	011	000	5
한화	000	000	000	0

■목동

롯데	000	000	010	1
넥센	200	000	01X	3

■대구

SK	110	031	210	8
삼성	100	000	200	3

역시 양학선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52년 역사상 첫 금메달을 거머쥔 양학선이 9일 러시아 카잔 젬나스틱센터 경기장에서 열린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기계체조 남자 단체 예선전에서 주특기인 도마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 시즌 4연승 도전

매뉴라이프클래식 출전

박인비(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새 역사를 쓰러 캐나다로 향한다.

올 시즌 메이저대회 3승을 포함해 6승을 거두고 있는 박인비는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의 그레이 사일로 골프장에서 열리는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LPGA 클래식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LPGA 투어에서 4회 연속 우승을 기록한 선수는 지금까지 4명이다. 미키 라이트(미국)가 1962년과 63년, 케이시 위트워스(미국)가 69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001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2008년에 이 기록을 세웠다. 대회를 건너뛰고 출전해 연속 우승한 최다 기록은 5회로 낸시 로페즈(미국·78년)와 소렌스탐(2004~2005년)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박인비에게 설욕전의 의미도 지닌다. 지난해 이 대회 3라운드까지 2타 차 단독 선두를 달리던 그는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동타를 허용했고 연장 3차전 끝에 브리트니 랭(미국)에게 우승컵을 내준 바 있다.

박인비는 시즌 상금 랭킹 1위(210만6000달러)와 평균 타수 1위(69.67타), 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281점)를 기록 중이다. /유순호기자

정성을 다해 이광훈 싱글벙글 사인 201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8강에 오른 뒤 8일 귀국한 대표팀의 이광훈이 9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뉴시스

미안하다 말하지마! 네 덕에 승부차기 간거야

U-20월드컵 8강 대표팀 귀국 - 다시 끈끈한 동료애 보여줘

감동을 선사하고 금의환향한 리틀 태극전사들이 또 한 번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줬다.

201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8강에 오르고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대표팀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인 이창근(부산)은 "경기 전 선수 미팅 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 다음 경기에서 꼭 이기자는 말을 주로 나눴다"면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말이 자극이 돼 더욱 뭉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8강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이광훈(포항)은 "동료들과 감독님, 코치님들에게 많이 미안했다"고 털어놨다. 경기 후 미안한 마음을 SNS에 올렸던 그는 "주변에서 '왜 미안하냐. 네 덕에 승부차기까지 갔다'고 말해줬다. 이번 계기로 선수들과 더욱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다가 발목 부상을 당했던 류승우(중앙대)는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는데 같이 못 뛰어서 울컥했다. 방해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 좋은 성적을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광종 감독은 차기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기자는 여론에 대해 "감독 선임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받는다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

추신수 6경기연속 안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6경기째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9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2013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지난달 내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추신수는 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부터 6경기 연속 안타를 치며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시즌 타율은 0.273에서 0.272로 약간 떨어졌다.

세 번째 타석까지 내야 땅볼로 물러났던 추신수는 7회 2사 1루에서 맞은 네 번째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뽑아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유순호기자